

일주문



현대종 상월원각조사 사진전
현대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8월 15일까지 현대종 종조 상월원각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 사진공모전을 연다.



월정사 제73기 단기출가 졸업식
평창 월정사 주지 정남 스님은 7월 23일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제73기 단기출가 졸업식을 봉행한다.



통도사 제5회 작은전시회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현근 스님은 7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제5회 작은전시회를 개최한다.



고운사 요사 상량식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7월 5일 고운사 요사 상량식을 봉행했다.



금산사 내비뒤 콘서트
김제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7월 20일부터 8월 2·6·20일 4회에 걸쳐 금산사 내비뒤 콘서트를 경내에서 개최한다.



포항 12대 사암연합회장
포항 보경사 주지 효웅 스님은 6월 27일 포항불교사암연합회의 1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동대전선원과 MOU
서울노인복지센터 센터장 정원 스님은 7월 6일 동국대 전산원 사회복지학과와 산학협력 MOU 협약을 체결했다.



김의정 회장, 문화재시민위원장으로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은 7월 1일 제2기 서울시문화재찾기 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인사> 은혜사 신도회장



영천 은혜사는 7월 3일 큰법당 앞에서 신임 김제용 신도회장 취임 법회를 봉행했다. 김제용 신도회장은 "입기동안 최선을 다해 사심없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겠다"며 신도회 사업 동참을 호소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고시생 돕는 장학재단 서울 터

'국민추천포상' 수상한 부산 천불정사 성부 스님

성부 스님(부산 천불정사 주지)은 부산대학교 법학도들의 신장(神將)으로 유명하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들에게 경내 '고담정'을 개방하고, 공부방은 물론 숙식 등을 보시하며 5년째 공부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내 고시원인 '신목정'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도 매년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100여명 이상의 장학생을 배출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성부 스님은 행정안전부로부터 7월 15일 '국민추천포상'을 수상했다.

"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의 작은 일을 행한 것일 뿐, 우리 절에서 열심히 공부해준 부산대학생들에게 공로를 돌립니다. 이번 상이 이제 막 사회로 나가려는 대학생들에게 어려운 현실 속에 주저앉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처음 고담정에서 고시생들이 방부를 듣게 된 계기는 가정불화 등의 이유로 마음의 안식을

찾으려는 신도와 그 가족들을 위한 쉼터의 마련이었다. 이윽고 대중에게 법당과 경내 모든 곳을 개방하면서 점차 요사채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 현재 고담정에는 22명의 법학도가 법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경내에서 마주치는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합격하라'는 식의 말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길 위에 있든 내 삶의 주인공이 나임을 잊지 말고, 자신의 삶에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적인 삶을 살라고 당부합니다."

향후 성부 스님은 '고담정'과 '신목정'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고시생들을 돕는 장학재단을 설립할 서원을 세웠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을 사회로 이끌어 주는 것은 물론, 불자들도 인재 불사에 동참하는 공덕을 쌓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중생심이 불심으로 변하기 위해서 불법을 알아야 하듯 불자대학생과 비종교, 이웃 종교의



신앙을 가진 학생들이, 이러한 장학 포교를 통해 각자 마음 속에 자리한 불심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 방편은 우리를 돕는 사람이 부처님도 인재 불사에 동참하는 공덕을 쌓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박지원 기자

제26회 불이상 시상식 개최

불이회(회장 홍라희)가 7월 5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제26회 불이회 시상식을 봉행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실전문야에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원장 선재 스님, 연구분야에 강성용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HK조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각각 2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정인숙 불이회 운영위원이 평창올림픽 유치지원 차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한 홍라희 회장을 대신해 대독한 인사말에서는 "불이회는 불교의 참모습을 깨우치기 위해 시작된 모임이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기 위해서는 불교를 위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며 "선재 스님은 음식을 통해 부처님의 뜻을 알렸고, 강성용 교수는 한국불교를 넘어 세계불교에 기여할 촉망받는 학자"라고 말했다.

이번 불이상 심사위원장이 최병헌 서울대 명예교수는 "선재 스님은 1990년대 초부터 사찰음식의 연구·개발은 물론, 사찰음식을 현대인들에 널리 알리고, 더불어 한식의 세계화 이바지에 기여했다. 또한 강성용 교수는 국제학술회의와 국제 저명학술지를 통해 인도불교의 연구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격상시키는데 공헌했다는 점을 높이 인정해 이번 불이상 수상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재 스님은 수상소감에서 "수많은 강의를 진행해 오면서 건강이 악화돼, 많은 분들이 강

의를 대가하고 있지만 쉬고 있는 상태였다"라며 "내 강의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만큼 값지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상을 빌어 다시 한 번 용기를 내 많은 분들에게 음식을 통해 부처님의 뜻을 전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용 교수는 "이번 수상은 앞으로 나의 연구가 미래의 후학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밑거름이 돼 줄 수 있겠다는 믿음과 격려차원에서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많은 스승님들과 선배들이 쌓아올린 거대한 탐에 돌 하나를 보탠다는 생각으로 후학들을 위해 필요한 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가수 장사의 씨가 즉석에서 무대에 올라 축하공연을 펼쳤다. 불이회는 한국·여성·재가불교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1974년 설립돼, 1985년부터 불이상을 제정·시상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동국대, LG U+와 U-헬스 협약

동국대(총장 김희옥)와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가 차세대 블루오션으로 각광받는 U-헬스(Ubiquitous-health) 사업에 함께 진출한다.

동국대 김희옥 총장은 7월 5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을 만나 4세대 통신 네트워크 기반의 U-헬스(Ubiquitous-health) 관련 '신개념 의료기기' 개발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4G LTE(Long Term Evolution)를 비롯해 초고속인터넷, WiFi 등과 같은 통신 네트워크와 다양한 의료기기 및 서비스를 접목시켜 U-헬스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과 신개념 의료기기 개발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또, 의료기기 개발과 관련한 온·오프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일산 동국대 바이오메디움캠퍼스에 무선 통신 네트워크 구축 투자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동국대 경주캠퍼스, 필리핀 엔더룬대와 협약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김영중)는 필리핀 엔더룬대학교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김영중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구본철 국제교류교육원장 등이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필리핀을 방문하여 체결한 이번 MOU는 양교 교수들의 파견과 연수, 학생교환 프로그램, 인턴십, 학술회의 및 공동 연구프로그램 구성, 어학연수 프로그램, 정보 및 학술 교재의 교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중 경주캠퍼스 총장은 "양 대학은 이번 협약에 따라 교수 및 학생의 교육, 학술, 문화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엔더룬대학은 필리핀 교육부 고등교육부서의 교육인증을 받은 4년제 대학으로, 호텔경영, 조리학, 경영학 관련 학문이 특성화되어 있으며 약 2,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번 MOU로 대학영어 교육 진흥에 큰 기대를 받고 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이번 여름학기에 2명의 동국대 재학생을 엔더룬대학에 교환학생으로 파견하며 활발한 학술교류를 시작했다.

노덕현 기자

천태종 대구 대성사 관음정진백만독 입재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김도산)는 7월 2일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상월원각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 일심정진 관음정진 백만독 백일기도에 입재했다.

3차 3년째로 대성사 서원당에서 열린 이날 입재식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감사원장 춘광 스님 등이 참석해 정진을 당부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주경야산을 통해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평등사회를 구현하자"며 "백만독 수행으로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성사 주지 도산 스님은 "정직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마음가짐으로 하루에 한가지 잘못을 고치고 계행을 지켜 선업에 동참하자"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한국사찰음식문화연구소 개소

의성 고운사가 부설기관으로 한국사찰음식문화연구소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간다.

7월 5일 고운사 경내 우화루에 문을 연 한국사찰음식문화연구소는 문경대 호텔조리학과 황은경 교수를 소장으로 유석사 주지 도륜 스님 등 스님과 각계 전문가 16명이 운영위원과 연구위원으로 참여했다.

연구소는 앞으로 사찰음식 재료와 조리법을 연구·개발하고 사찰음식의 대중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사찰음식체험관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일봉신문사 창간 28주년 기념대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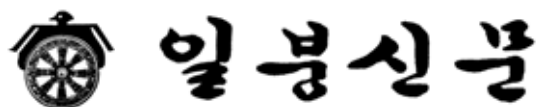


초대의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맹하지절에 범하의 가내(사내)에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일불존자님의 가호가 항상 깃들기를 합장 기원합니다. 금번 세계불교법왕정 초대법왕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장, 대학선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국가보위입법의원, 경주 불국사 주지 등 수많은 행적을 남기시고 세계최다 박사학위(문학, 철학박사 등 126개) 등 세계기네스북에 5관왕을 기록한 일봉 서경보 존자님께서 창간한 일봉신문이 어느덧 2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창간28주년을 경축하는 기념대법회에 법하를 초청하오니 부디 동참하시어 법석을 빛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기 2555(2011)년 7월



초청인 회장 김도기, 상임부회장 범홍, 부회장 정림, 사장 동봉, 부사장 각운, 발행인 서병열 합장

- 일시 : 불기 2555(2011)년 7월 20일 수요일 (음력 6월 20일) 오후 2시 ~
장소 : 백범 김구 기념관 대회장 전화 02)799-3424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255 (효창공원 내)
문의전화 : 02)777-0959, 777-0901 일봉신문사

※점심공양은 드시고 오십시오
※행사가 끝난 후 저녁식사 드립니다.
※경품추천 (일봉 큰스님 전지점, 도기 큰스님, 동봉 큰스님 작품, 일봉 큰스님 전집)